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행동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는 돌도 없는 믿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직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각 지파에서 차출된 열두 명의 지도자급 정탐꾼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최고의 관계로서 새로운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사심 없이 친구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명령할 때에 내가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명령에도 나는 순종합니다."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 오랜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아쉬움을 두고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평한 긴장감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 잡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뺀 아홉 지파는 자신들의 분깃으로 서로 좋은 것과 큰 땅을 가지기를 원하며 예민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인해 마음이 몹시 무거웠을 듯합니다. 이 극적인 상황에서 갈렙은 오히려 자신만이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기득권을 포기한 채, 욕심을 다 버리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척박한 땅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갈렙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분깃을 나누는 작업은 은혜와 감동으로 이루어져 아무런 부작용 없이 순종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명예와 부 혹은 권력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오직 하나님만을 좇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은 이스라엘에 있어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은 영적인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각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좇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갈렙처럼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 작은 믿음 하나가 가정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갈라디아서 여섯 장 일곱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도후서 다섯 장 일곱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입니다. 롯은 자신만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따라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토양도 비옥하고 수자원이 넉넉하고 애굽 땅처럼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재물도 다 잃어 버렸고 그의 아내마저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신의 눈을 기준으로 삼은 롯은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망하고 쫓겨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선택,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선택,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택한 결과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고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두 선 사이의 일도 차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두 선 사이는 점차 벌어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도 역시, 선택의 순간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 그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매일매일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눈에 보기 좋고 당장 이익 되는 길과,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길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 결단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가정이 됩시다. 욕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는 가정, 그로 인해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기	찬송가 312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삼 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급박한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를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그들은 욕심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심정은 심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지금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바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보려는 심각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은 살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게 맡기고 순종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심정도 모르고 잠만 자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모두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 자주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이 닥쳐서야 후회하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다고 핑계 댈 것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면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기도할 때에 새로운 힘이 날 것입니다. 주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팔리고 주님을 잡으려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다가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대처할 능력이 없는 시간이 바로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갑자기 닥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 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처합니다. 우리 가족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주님이 함께 깨어 있자고 하실 때,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삶의 바쁨과 피곤함을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삶에 닥치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새로운 힘이 나고,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준비된 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정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찬송하기	찬송가 361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를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33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신의 삶이 건강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을 다듬으며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 것은 집념이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시편 백이십일편도 그 중의 하나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의 장엄한 성산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격, 곧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고백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한 찬양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에서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산이라고 믿고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묻고 대답합니다. 순례자들의 순례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도움을 찾지만,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는 이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의 삶이 간증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여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간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참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한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위험도 미치지 않을 허락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주시는 분이요 노래합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출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 하십니다. 셋째, 성도를 어떤 환난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고 선포하고, 오늘 우리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안심 있으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지켜주심을 우편의 그들로, 더 나아가 해와 달뿐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영혼까지도 악으로부터 영원히 지켜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은 단순히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나 교제 등과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매사에 깊이 관여하시고 참여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깊은 관심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수단과 사람과 방법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해와 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까지도 악으로부터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 매일의 출입을 하나님의 우편의 그늘 아래 맡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신앙의 오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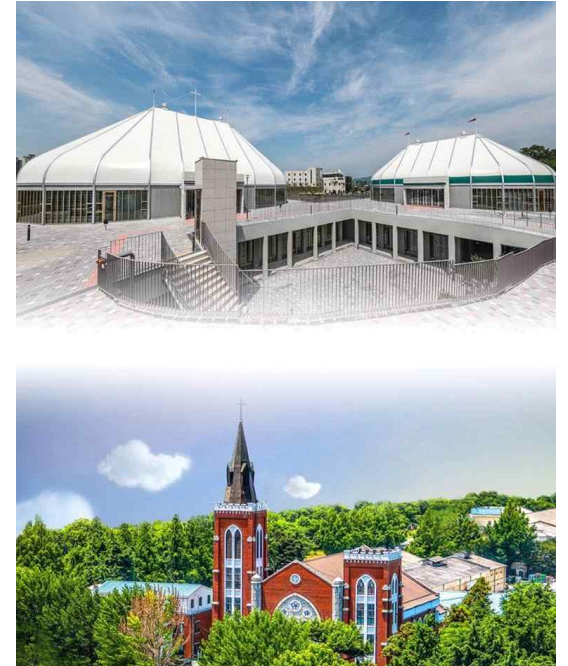
내려놓음 · 선택의 눈 · 깨어 기도함 · 그늘 아래 맡김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조용히 묻게 됩니다. 여호수아 결에서 갈렙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명예와 땅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낙 자손이 가득한 척박한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의 첫 걸음은 그렇게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뚝은 눈앞에 좋은 땅만 바라보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아브라함은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선택은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 결단입니다. 우리 가정의 매일매일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익 되는 길과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길 사이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환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피곤함을 이유로 잠을 선택하면 시험에 들고, 깨어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새 힘이 납니다. 주님이 함께 깨어 있자고 하실 때, 우리 가정은 무엇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습니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갑자기 닥친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만, 기도하는 가정은 주님이 준비시킨 은혜로 감당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정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10월의 끝에서 우리 가정은 시편 121편의 고백을 되새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의 모든 여정의 참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출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해와 달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까지도 악으로부터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출입은 단순히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교제, 선택과 결정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매사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 매일의 출입을 하나님의 우편의 그늘 아래 맡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고, 선택할 때 믿음의 길이 열리며,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시고, 맡길 때 그분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